印 오디샤주서 9C 불교유적지 발견

잦은 범람으로 유적 토사에 묻혀
16C 이슬람교 의한 훼손 추정도
2m 달하는 관세음보살입상 주목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동부에 위치한 오디샤(Odisha)주에서 새로운 불교유적지와 유물들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18일 인도 '더 스테이츠 맨' '오디샤 바스칼'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INTACH(인도 국립예술 및 문화유산 신탁)의 오디샤 지부는 쿳탁(Cuttack)지구의 가네스와라푸라 마을 근처에서 고대 불교 사원 유적지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유적지는 마을 끝에 위치한 논밭 안의 작은 언덕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비루파(Birupa)강 제방에서 불과 150m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여러 유적지와 유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INTACH의 비스와짓 모한티 박사와 4인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모한티 박사는 "비루파강의 현재와 고대 범람원 양쪽 강둑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지가



유적지 인근에서 발견된 석조 관세음보살상입상.
사진출처=더 스테이츠 맨

점재해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유물은 거의 2m에 달하는 관세음보살 불상"이라며 "안타깝게도 머리는 없어졌지만 도상학적으로 이 불상은 인근의 라트나기리(Ratnagiri), 우다야기리(Udayagiri), 랄릿기리(Lalitgiri) 등의 불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관세음보살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모한티 박사는 "비루파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대형 불상을 모신 불탑이나 사찰의 유적들이 대부분 토사 밑에 묻혀 있다"면서 "불상이 발견된 현장과 몇 미터 떨어진 작은 힌두사당에서 발견된 몇몇 불교유물들은 무굴 시대의 이슬람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의 전승과 기록 등에 따르면 현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힌두사원인 판추판다바 사원과 타레스와라 사원이 16세기 이슬람교 장군인 칼라파하다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고 전해 이 불상과 불교사원들도 이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불상이 발견된 곳에 인접한 라메쉬와르 마을의 힌두사원에선 불탑이 발견됐다. 현지조사팀의 일원인 아닐 디르 연구원은 "이번 발견들은 고대에 이 지역에서 불교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시사한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발견된 관음상을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도상과 비교하면 대략 서기 9세기 이전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표에 드러난 사원의 기단 유적에서 수습된 벽돌파편에서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진 것에서 유적지에 대규모의 사찰이나 불탑이 묻혀 있음이 추정되고 있다. 현재 INTACH 오디샤 지부와 쿳탁지구 문화유산 협회등은 인도 국립 고고학연구소와 문화국과 협조, 추가 세부 조사와 발굴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불상, 문화재 이전에 예경 대상입니다"

日 사찰, 봉안 관음상 전시 취소
신앙 지켜온 현지 의견 수용키로

일본의 한 사찰이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시회에 출전하기로 한 불상을 더 이상 타 지역에 출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화제다. 사찰 관계자 측은 "불상은 문화재 이전에 예경의 대상"이라고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일본의 '교토신문'은 불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다.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를 중심으로 지역에 전승되어온 관음신앙과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2월부터 진행되는 전시 〈관음의 고장·기도와 생활의 문화와 전승〉에 출전하기로 결정됐던 쇼묘지(正妙寺)의 '천수천족관음관세음보살상'의 출진이 돌연 취소됐다.

나가하마시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琵琶)호 북쪽에 소재한 도시로 비와호 안의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가 관음성지로 유명해지면서 10세기경부터 관음신앙이 성행했다. 현재 시내에만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



출전이 취소된 천수천족관음상.
사진출처=트위터

보살상이 점재해 '관음의 고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이 중 시내 쇼묘지에 봉안된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높이 약 42㎝의 목조입상이다. 이름은 천수천족이지만 실제로는 40족 40수의 손과 발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매우 드문 도상으로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어 나가하마시의 관음신앙과 관련된 전시회에 자주 출전돼 왔다. 시 측은 사찰의 갑작스런 출전취소 통보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쇼묘지 측은 "신도회의 임원들 사이에서 '관음상이 본래에 계셔야 할 곳이 아닌 타 지역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특히 관음신앙이 깊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타 사찰이나 지구의 관음상에 비해 출전되는 횟수가 많고, 계속되는 분해와 운반 등에 불안이 많다"고 말했다.

쇼묘지 신도회의 한 관계자는 "본래 불상이 계셔야할 사찰에 봉안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옳다"면서 "문화재나 전시품 이전에 예경의 대상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은 "불상을 타지역에 모셔가서 전시하는 것보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지역의 주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나가하마시 지역역사개발실의 모리오카 켄야 실장은 "지금까지 출전을 취소했던 적이 없었기에 유감이지만 실제 신앙을 지켜온 현지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측은 이번을 계기로 장래에는 관람자들이 현지 사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벽도시 카세레스
산티아고 순례길 인근에 9만평 규모로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에 조성될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감도.
사진출처=BNN Breaking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강세한 서양에서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톨릭 문화가 깊은 스페인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이 조성된다. 지난 1월 5일 홍콩의 '비엔엔 브레이킹'은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성 소식을 전했다.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은 스페인의 유명한 성지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길목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벽 도시다. 이 지역에 9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전법중심도량을 조성하는 '위대한 부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불교문화 단지에는 높이 47m, 6000t에 육박하는 거대 백옥 불상과 정원, 수행 공간, 요사채,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룸비니동산재단이 주도한다.

룸비니동산재단의 후원자 리카르도 게레로 스님은 "'위대한 부처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흐름이 아시아로 향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종교적 공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나 간절히 찾아 헤매던 영적 해답은 불법(佛法)에서 찾았다"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일련의 가치관이 담겨있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학연구센터에 따르면 가톨릭 본산인 스페인 사람들의 36%만이 가톨릭 신자이며 이 중 18%만이 성경 실천을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전법중심도량 설립 목적을 밝혔다.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팽팽한 대립이 있었으나 극적인 타협 끝에 최초 선정 용지에서 10㎞ 떨어진 세로 데 로스 로마노스로 결정됐다. 환경단체 디아스 회장은 "사업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은 전법중심도량 설립에 긍정적인 견해"라면서 "자원이 많지 않은 카세레스 마을에 다양한 종교 문화의 접촉, 상호 관용 등을 통한 독특한 관광 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룸비니동산 재단은 2019년 마드리드에서 설립된 국제재단으로 평화와 자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법중심도량 조성과 문화, 사회, 예술, 교육, 관광 및 스포츠에 대한 협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지정

캔디 지역 불교 중심지로 육성
국제 불교 박물관 설립 예정도

지난 2월 16일 홍콩의 '비엔엔 브레이킹'은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지정 소식을 전했다.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이 후대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리랑카 정부는 풍부한 문화와 종교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근 불교 사원을 11개소를 성지로 공식 선포했다. 스리랑카에서 성지로 인정받은 사원은 142곳으로 늘어났다.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마싱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30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의 불교 보존과 진흥, 성스러운 진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스리랑카의 삶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대통령 사무국에서 승가에 자선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스리랑카 미러 닷컴

교육할 것을 약속하며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불교 전통이 깊은 캔디(Kandy)를 불교학 연구와 불교 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하 비하라 대학과 국제 불교 박물관을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불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발표에 앞서 승가를 기리며 대통령 사무국 측의 자선 기부가 이뤄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